



투어캐스트 E-BOOK TOKYO - 1

COPYRIGHT TOURCAST



1

목차

< 1편 목차 >

1장 목차

2장 항공

- 항공 예약 팁

3장 숙박

- 숙박 예약 팁
- 커플 여행
- 나홀로 여행
- 가족여행 (어린이)
- 가족여행 (아기)
- 게스트 하우스
- 특급호텔

4장 여행준비

- 이벤트 & 축제
- 여행자보험

- 데이터로밍

- 일본에서의 쇼핑

- 동행서비스

-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 현지에서 문제 발생시

5장 & 일정 짜는법

- 도쿄 교통 이해

- 환승방법

- 보통권 사용 주의사항

- 교통패스

- 노선도 검색 추천 어플

- 일정 짜는 법

6장 공항에서 시내

- 하네다 공항에서

< 2편 목차 >

1장 목차

2장 공항에서 시내

- 나리타 공항에서

3장 야마노테선 위주

- 신주쿠
- 하라주쿠
- 시부야
- 에비스
- 하마마츠쵸
- 도쿄 역
- 아키하바라
- 우에노
- 이케부쿠로
- 신오오쿠보

4장 도쿄도심내

- 오다이바
- 긴차 / 츠키지

- 롯폰기

- 아사쿠사&스카이트리

- 도쿄돔

- 다이칸야마&나카메구로

- 지유가오카

- 시모키타자와

- 키치조지&지브리미술관

5장 도쿄 도심 외

- 요코하마

- 디즈니랜드

- 가와고에

- 하코네

- 휴지큐 하이랜드

- 닛코

- 에노시마&가마쿠라

6장 마무리

< 2편 미리보기 >

•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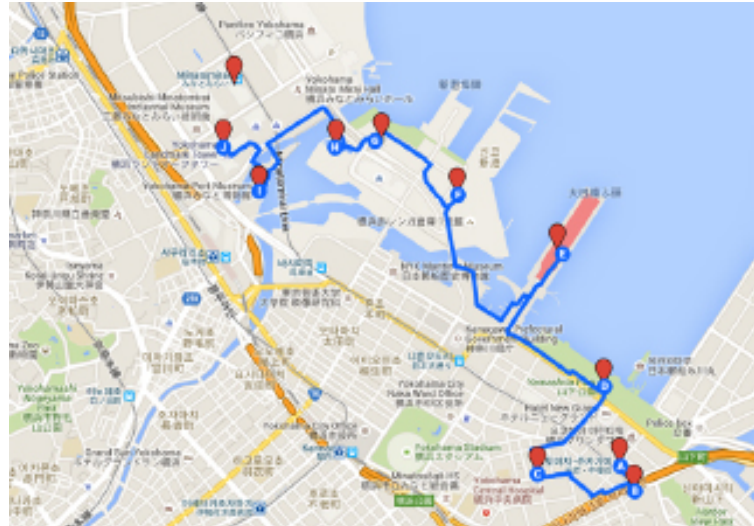
< 2100엔에 오오에도 온천과 나리타 공항 이동? >

케이세이에서 운영하는 고속버스인 도쿄 셔틀은 나리타공항 - 오오에도 온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오에도 온센 모노가타리 세트 플랜'을 이용하면 단 2100엔에 온천과 나리타 공항까지 갈 수 있다.

1. [도쿄 셔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 900엔 버스 예약 (단, 날짜 주의)
2. 메일로 온 예약확인증을 프린터
3. 예약확인증을 오오에도 온천 입장 시 제시 후 1200엔에 입장
4. 03:40 또는 05:20 버스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

< 주의 >

- 버스 탑승 전일 18:00 ~ 05:20까지 이용가능
- 매월 1회 [정기점검의 날\(일어\)](#) 미리 확인
- 오오에도 온천의 심야 추가요금 없음



㉔요코하마 아카렌카 참고 → ㉕컵라면 박물관 → ㉖요코하마 코스모월드 → ㉗니혼마루 → ㉘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 미나토미라이 역 → 요코하마 역

1) 모토마치 상점가

외국인들의 거류지였던 야마테 지역과 업부를 보는 간나이 지역사이에 개항과 함께 탄생한 역사 깊은 상점가이다. 일본 최초의 베이커리 '우치키 빵'은 지금까지도 영업 중이다.

3) 수상버스

아사쿠사 또는 유리카모메 히노데 역 부근의 히노데 선착장(日の出棧橋)에서 배를 타고 오다이바를 갈 수 있다. 유리카모메 또는 전철로 가는거보다 조금 색다르게 가고 싶거나 낭만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한다. 하지만 노선별로 배가 종류와 요금이 다르며 배 편수가 많지 않으므로 시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목적지	요금	시간	비고
아사쿠사 출발	일반	780엔	70분	히노데 정차
	히미코	1260엔	50분	직통
	호타루나	1560엔	60분	히노데 정차
히노데 출발	일반	480엔	20분	
	호타루나	780엔	20분	

'히미코(ヒミコ)'는 은하철도 999의 작가 마쓰모토 레이지가 '눈물'을 컨셉으로 디자인한 배로 철이, 메탈 등의 목소리로 기내방송이 된다. '호타루나' 또한 마쓰모토 레이지가 디자인 했으며 '달이 빛나는 밤에 신비한 빛을 발하는 반딧불'을 형상화 했으며, 반딧불의 일본어인 호타



존왕양이 주의자였던 사카모토 료마가 삿초동맹을 이끌어내고 1867년 대정봉환으로 300년간 이어온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권력을 천황 중심으로 회복된 왕정복고가 이뤄진다.

이에 메이지 천황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라는 개혁을 하고 이때부터 메이지 연호를 쓰며, 중앙 집권적인 행정 제도를 만들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선언한 후 세금 제도와 군사 제도를 바꾼다. 또한, 1889년 헌법을 발표하고 이듬해 의회를 만들었으나 이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천황의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는 것

2편 받는 방법은 마지막 장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항공권



항공권 예약 TIP

도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사카와 큐슈 지역과 달리 배로는 이동되지 않으며, 항공편만 가능하다.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은 인천, 김해, 제주 공항에서 출발하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은 인천,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도쿄 도심과의 거리라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



라와 같이 서울과 인천공항은 거리가 있듯 나리타 공항은 멀고, 김포공항은 가까운거처럼 하네다 공항도 도쿄 도심과 멀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 특히 김포-하네다 구간은 비즈니스(업무)로 가는 출장자가 많아 인천-나리타 편보다 항공요금이 비싼 편이다.

얼마전부터 인천-하네다 구간을 취항하고 있으며 하네다 공항으로 저렴하게 도쿄 여행이 가능하지만 비행기 스케줄이 좋은 편은 아니니 이런점은 감안해서 예약을 해야한다.

도쿄로 가는 항공편은 저가항공(LCC : Low Cost Carrier)으로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에어부산이 운항 중이며, 일본 국적의 저가항공인 피치항공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국적기의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외국 항공사인 JAL항공(일본항공), ANA항공(전일본공수) 편의 대형 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도 이용할 수 있다.

• 저가 항공사 vs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은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그만큼 항공료 부담을 여행객에게 줄여주며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내식, 기내 담요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

고 탑승을 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특가요금을 접할 때가 많은데,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가 높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저가항공은 대부분 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마일리지 적립을 챙기는 여행객들은 이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에 반면 대형 항공사는 마일리지, 기내식, 담요 등이 기본 제공되며 개별 항공권 구매 시에는 사전 좌석 지정도 가능해 서비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저가항공보다 항공권이 다소 비싸다. 그러나 저가항공보다 비행편이 많아 보다 다양한 시간대의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항공권 구매 시 주의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얼리버드 (Earlybird) 등의 특가할인 기간에 예약하면 좋으나 조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했다면 일정 취소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 예도 있으니 반드시 발권기한, 일정 변경 수수료, 취소 시 환급 수수료 등을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특히 연휴 기간은 좌석확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사전에 항공사와 협의 후 항공권을 미리 구매 후 판매를 하므로, 만약 좌석확보가 힘든 경우 여행사에 문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미리 확보한 좌석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명 ‘땡처리’라는 명목으로 초특가 상품이 종종 나오기도 하나 출발 3~4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이용이 쉽지가 않다.

3줄 요약

1. 특가 항공권일수록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2. 항공권 구매 시에는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자.
3. 저가항공과 대형 항공사의 항공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備

3

숙박

手作り

お刺

り太

焼き



호텔 최저가 예약 꿀팁

• 호텔 예약 꿀팁

항공권(숙박권) 예약을 끝냈으면 그 다음은 숙소 예약을 해야한다. 이 때 가장 궁금한건 어떻게 예약을 해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예약을 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행사에 서만 의존하던 해외여행 예약을 온라인이 발달 됨에 따라 해외 OTA

(Online Travel Agency)업체와 비교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호텔 예약할 경우 최저가 객실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 최저가 호텔 예약 꿀팁 >

1. 해외, 국내 OTA 호텔 업체의 요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호텔스컴바인’ 에서 체크인/아웃 날짜 입력 후 조회

[호텔스컴바인 도쿄 지역 호텔 검색](#)

2. 검색된 결과는 세금 불포함된 요금이므로 조회된 요금을 클릭하여 세금 포함요금과 예약조건 및 포함 내역을 확인한다.

- 특히 해외 OTA업체에서는 취소, 변경, 환불 불가 조건으로 저렴한 조건이 많으니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 한국 여행사 또는 OTA 업체에서 같은 조건의 요금을 비교 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예약을 한다.

- 한국 OTA 업체는 대부분의 객실이 출발일 7일전 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해외 OTA과 이런 점을 비교해서 예약 진행을 한다.

-

- **해외 OTA 할인코드 적용**

앞서 호텔스컴바인에서 조회한 요금 중 가장 좋은 요금이 아래 해외 OTA 업체 중 한 곳이라면 할인코드 적용으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래 해당 업체 이미지를 클릭해 할인코드 적용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할인코드로 좀 더 저렴하게 예약하자.



• 도쿄 숙소 위치는?

만약 외국인 친구가 서울로 여행 온다면 숙소를 어느 쪽으로 추천할까? 아마 강남, 잠실, 홍대 등의 2호선 위주로 우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만큼 순환선인 2호선에 주요한 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도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순환선인 야마노테선(山手線)에 신주쿠, 시나가와, 우에노 등의 주요 역들이 있어 도쿄 여행이 처음이라면 야마노테선에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게 좋으며, 야마노테선을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 신주쿠 주변(이케부쿠로, 하라주쿠, 시부야 등)
- 시나가와, 도쿄역 주변(하마마츠쵸, 신바시 등)
- 우에노 주변(닛포리, 아키하바라 등)

우리나라 2호선을 생각해서 야마노테선 한 바퀴 돌면 오래 걸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마노테선은 2호선보다 짧은 약 한 시간 정도로 한 바퀴 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이 여행 다니기가 좋

다!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신주쿠가 번화가이니
까 여행 다니기가 가장 좋을거야!’ 라는 생각으로 신주쿠 역
주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여행경비에 맞는 호텔을 선정하
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처럼 신주쿠 쪽 호텔이 좀 더
비싼 편이니 같은 요금으로 더 좋은 시설을 호텔 예약이 가
능하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호텔 예약하는 게 좋다.

그럼 만약 야마노테선 역 쪽에 호텔 예약이 안되면, 여행하
기 어려울까? 그건 아니다. 도쿄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많
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역이
있다는 반증의 의미이기도 하므로, 도쿄 노선도 검색하는
사이트 또는 어플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장 빠른 노선
검색으로 쉽게 여행 다닐 수 있다.

• 호텔은 한 호텔만?

하코네 료칸이나 오다이바 쪽 호텔에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거나 도쿄타워를 보며 분위기 내기 위해 별도로 숙박하지
않는 이상은 한 호텔에서 머무는게 좋다. 도쿄 시내가 서울

보다 작으므로 굳이 호텔을 바꿔가며 여행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비즈니스급 호텔? 세미더블 룸?

일본 여행상품 또는 호텔 예약 시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는 일본 샐러리맨들이 출장을 가서 저렴하게 묵는 호텔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비즈니스로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가도 싱글룸에 숙박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비즈니스 호텔들은 객실에 침대가 두 개 있는 트윈룸보다 싱글룸이 많은 편이다. ‘세미더블룸’은 이런 싱글룸 객실을 두 명이 숙박할 수 있게 한 룸타입을 말한다. 일단 더블룸보다 침대가 작으며 침대 폭이 보통 120~140cm 정도로 작은 편이며 우리나라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 정도 된다. 여자 두 명이라면 별 무리 없이 잘 수 있지만, 남자 두 명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야 하므로 잘 때 예민한 분들은 트윈룸을 추천한다.

- **일행별 추천호텔**

투어캐스트에서는 다른 가이드북과 달리 같이 가는 이행에 따라 호텔을 추천한다.

연인끼리 가는 경우, 혼자 가는 경우와 특히, 자녀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는 자녀들과 같이 투숙이 가능한 동반 투숙이 가능한 호텔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지 : <http://www.claska.com/hotel/room/604.html>

커플 여행

연인과의 여행...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여행!! 특별한 여행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디자인 호텔을 추천한다. 이런 디자인 호텔은 비즈니스급 호텔보다 객실도 크고 침대도 넓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하지만 비즈니스급 호텔보다 다소 가격대가 있어,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 나오는 '나홀로 여행시 추천호텔' 편을 참고 하는 게 좋다.

• **파크호텔 도쿄(Park Hotel Tokyo)**

영화 ‘도쿄타워’의 촬영지로 더 유명한 파크호텔 도쿄는 객실이 26~34층 사이에 있어 시오도메의 야경을 즐기기에 최적의 호텔이다. 특히, 도쿄타워가 보이는 타워뷰 객실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일본여행을 마무리 짓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지 : <http://parkhoteltokyo.com/double-tw/>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그레이스리 신주쿠(Hotel Gracery Shinjuku)

2015년 4월에 그랜드 오픈한 그레이스리 신주쿠 호텔은 신주쿠 동쪽 출구의 가부키초 쪽에 위치한다. 신주쿠 쪽을 원하는 여행객이라면 한번쯤은 염두해 볼만한 호텔이다.

또한 호텔 8층 야외테라스에는 거대한 고질라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어 최근 신주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http://shinjuku.gracery.com/ko/accommodation/#standard-double>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클라스카 (Claska)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21개의 객실은 5개의 시리즈로 구분되어 각각의 개성을 드러낸다. 그야말로 도쿄 디자인 호텔의 최고봉!



이미지 : <http://www.claska.com/hotel/room/606.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시타딘 센트럴 신주쿠 도쿄 (Citadines Central Shinjuku Tokyo)

시타딘 신주쿠 호텔은 레지던스였다면 시타딘 센트럴은 호텔로서 신주쿠 가부키초에 2015년 4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으며 내추럴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특히 여성 여행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지 : <http://www.citadines-ccst.com/theme2.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메르큐르 긴자(Mercure Hotel Ginza Tokyo)

명품거리 긴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프랑스 아코르 그룹이 운영하는 디자인 호텔로 여성들이 좋아할만한 감각적인 객실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미지 : <http://mercureginza.jp/room/superior-queen/>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렘히비야 (Remm Hibiya)

JR야마노테선 유라쿠초 역과 지하철 히비야선이 근처에 있어 도쿄 어디든 이동이 편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젊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여행자의 숙면을 우선시 하는 호텔이다.



이미지 : <http://www.remm.jp/hibiya/rooms/>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미츠이 가든 우에노(Mitsui Garden Hotel Ueno)

우에노 역과 근접해 특히 나리타 공항 출도착하는 여행객이 많이 찾는 호텔이다. 미츠이 계열의 호텔로 중후한 객실 분위기와 팬더룸이 인상적인 호텔이다.



이미지 : <http://www.gardenhotels.co.jp/ueno/room/room-pandouble/>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더 비 롯폰기 (The B Roppongi)

더 비 계열로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젊은 커플들한테 인기가 많은 호텔이다. 도쿄 미드타운이 도보 5분 이내 거리로 롯폰기 쇼핑 & 관람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다.



이미지 : <http://roppongi.theb-hotels.com/guest-rooms/>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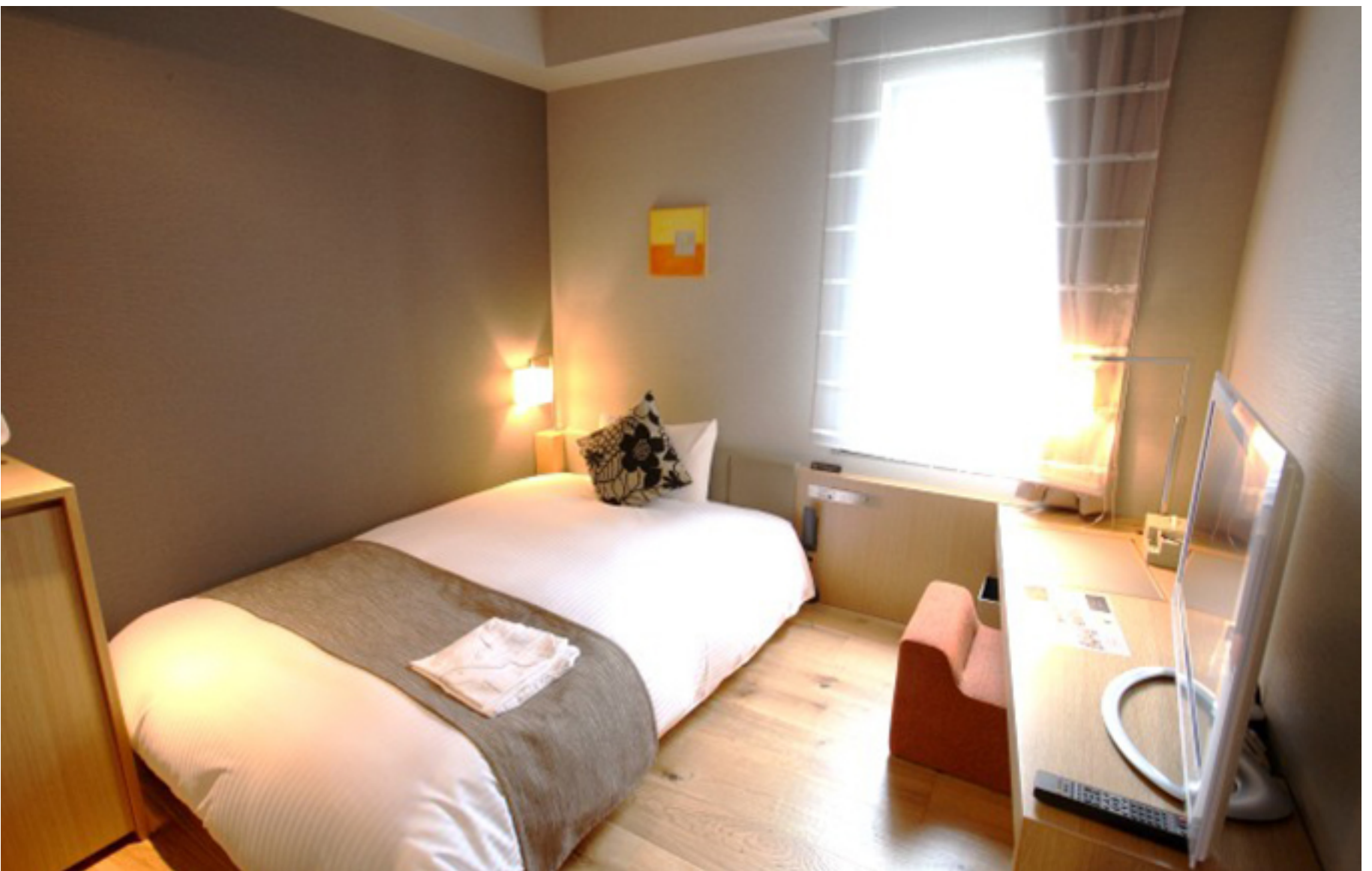


나홀로 여행

혼자 여행갈 경우에는 객실을 혼자 쓰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부담될 수 있으므로 시설 및 위치가 혼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비즈니스급 호텔을 추천한다. 비즈니스급 호텔도 싱글룸이면 1박당 12~1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게스트 하우스 다인실을 이용하면 현지에서 여행친구도 사귄 수 있다.

• 그레이스리 타마치(Hotel Gracery Tamachi)

여성전용 객실인 레이디스룸이 있어 혼자 가는 여성 여행객에는 취향저격 호텔! 마스크 팩, 스킨케어 세트 등 여성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미지 : <http://gracery.com/tamachi/stay/room/GR042082344274.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윙 인터내셔널 이케부쿠로 (Hotel Wing International Ikebukuro)**

여성 덕후의 성지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윙 인터내셔널 이케부쿠로 호텔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프론트로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숙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지 : <http://www.hotelwing.co.jp/ikebukuro/info.html#photog>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프린세스 가든(Princess Garden Hotel Tokyo)**

일반적인 비즈니스 호텔에서 보기 힘든 크기의 객실크기 (16m²)를 자랑하며, 가격도 적당선이라 혼자 가는 여성 여행객에 적합하지만 금연실이 없다는게 한가지 단점이다.



이미지 : <http://www.princess-garden.co.jp/rooms/>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몬트레이 라쇼르 긴자(Hotel Monterey Lasoeur Ginza)**

긴자에 있는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호텔로 따뜻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객실이 돋보인다. 긴자에서 쇼핑 위주의 여행객에게 최적의 호텔!



이미지 : <http://www.hotelmonterey.co.jp/ginza/stay/room/137.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이비스 신주쿠(Hotel ibis Tokyo Shinjuku)

2011년 11월에 오픈한 호텔로 신주쿠 역 서쪽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세계 최대 호텔 그룹 Accor의 Ibis 브랜드의 호텔이다.



이미지 :

<http://www.accorhotels.com/ko/hotel-8620-ibis-tokyo-shinjuku/room.s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이미지 : <http://www.keioplaza.com/rooms/kitty.html>

자녀와 같이 가는 가족여행

비즈니스급 호텔은 아무래도 객실이 작다 보니 동반투숙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이런 곳에 자녀랑 같이 가면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한다. 하지만 호텔 등급을 조금 높이면 트윈 룸 한 개 예약만으로 만 12세 미만 자녀 2명까지 동반투숙이 가능한 호텔이 있다.

이런 호텔은 비즈니스급 호텔 객실 2개 예약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숙박이 가능하지만 침대

2개에서 자녀들을 안고 자야 하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예약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과 같이 도쿄 여행을 가면 거의 디즈니랜드를 가므로, 호텔에서 디즈니랜드까지 셔틀 버스가 있는 굿네이버 호텔(Good Neighbor Hotel)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굿네이버 버스 호텔 리스트](#)

• 게이오 프라자 호텔 도쿄 (Keio Plaza Tokyo)

도쿄 도청 옆에 위치하며 도심에서 유일하게 굿네이버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로 사전 예약 시 디즈니 랜드까지 왕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5세 어린이 2명까지 무료 동반 투숙 가능



이미지 : <http://www.keioplaza.com/rooms/superior.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하얏트 리젠시 도쿄(Hyatt Regency Tokyo)

신주쿠 역하고는 도보 15분 거리이지만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12세 어린이 2명까지 동반 투숙이 가능하다. 특히 호텔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신주쿠 중앙공원이 인상적이다.



이미지 : <http://tokyo.regency.hyatt.com/en/hotel/rooms/view.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신주쿠 프린스(Shinjuku Prince)

신주쿠의 대표적인 호텔로 2층에 세이부 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 2명까지 동반 투숙이 가능하다.



이미지 : <http://www.princehotels.co.jp/shinjuku/room/room13/>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뉴 오타니 도쿄 아카사카(New Otani Tokyo Akasaka)**

도쿄 중심에 있어 관광지 어디든 편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호텔 부지에 400년 된 일본식 정원이 있어 색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이미지 : <http://www.newotani.co.jp/tokyo/stay/room/main/mt36/index.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이미지 : <http://www.citadines.jp/shinjuku/guestRoom.html>

아기가 있는 가족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겨가야 할 짐도 많을 것이다. 객실에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이 있어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며 전자레인지가 있어 젓병 소독 등도 쉽게 할 수 있어 레지던스를 추천한다. 물론 이보다 저렴하게 갈 경우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

• 도큐스테이 고탄다 (Tokyu Stay Gotanda)

객실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가 완비되어 있어 간단한 세탁, 조리가 가능하며 위치도 JR야마노테선 도보 2분거리로 아기와 같이 가는 가족여행이라면 추천하는 호텔이다.



이미지 : <http://www.tokyustay.co.jp/hotel/GO/room/>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시타딘 신주쿠 (Citadines Shinjuku Tokyo)

세계적인 시타딘 계열이 레지던스 호텔 형식으로 오픈한 시타딘 신주쿠 도쿄. 객실을 오렌지와 화이트의 조합으로 깔끔한 객실이 인상적이며 각종 주방 조리기구가 되어 있어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미지 : <http://www.citadines.jp/shinjuku/guestRoom.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게스트 하우스

성별 구분 없이 같은 일행이 2명 또는 6명까지 같은 객실을 쓰고 싶을 경우 게스트 하우스를 추천하며, 혼자 갈 경우에는 남녀구분된 다인실(도미토리)에서 숙박을 한다. 게스트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호텔보다 저렴하며,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인, 어린이 구분없이 요금이 동일하며, 개인용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최저가 확인



이미지 : <http://www.ritzcarlton.com/en/hotels/japan/tokyo/spa>

특급호텔

도쿄에서의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한다. 대부분의 객실들이 고층에 있어 도쿄 시내를 전망할 수 있으며, 담당 리셉셔니스트의 체크인, 객실 소개, 명품 어매니티 용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급호텔에서의 숙박은 하나의 하나의 특별한 관광지가 더 생기는 것이지만 1박에 최소 40만 원 넘는다는건 안 비밀!

• **파크 하얏트 도쿄(Park Hyatt Tokyo)**

신주쿠에 위치한 특급호텔로 세계의 독특한 타워와 다면체로 디자인 되어 있어 신주쿠 스카이 라인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의 하나이다. 넓은 피트니스, 수영장, 월풀, 사우나 등 폭넓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미지 : <http://tokyo.park.hyatt.com/en/hotel/rooms/standard.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Mandarin Oriental Tokyo)

전 세계 호텔 브랜드인 만다린 그룹의 일본 첫 번째 호텔로 도쿄의 역사적인 니혼바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객실은 모두 30층 이상에 위치하여 전망 또한 뛰어나며 만다린 오리엔탈의 전통적인 고품격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미지 :

<http://www.mandarinoriental.com/tokyo/accommodation/deluxe-room/>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포 시즌 앳 마루노우치(Four Seasons At Marunouchi)

세계 최고급 호텔 체인인 포시즌 그룹에서 도쿄내 두번째 호텔이며 전세계 5번째 Top로 선정되기도 한 호텔이다. 도쿄 역과 인접해 공항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도쿄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다.



이미지 :

http://www.fourseasons.com/tokyo/accommodations/guest_rooms/deluxe_king_room/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리츠칼튼 도쿄(Ritz Carlton Tokyo)

롯폰기의 도쿄 미드타운에 있는 호텔로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48층 ~ 53층에 객실이 위치하고 있어 객실에서 도쿄 전체의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미지 :

<http://www.ritzcarlton.com/en/hotels/japan/tokyo/rooms-suites/tower-deluxe-room>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안다즈 도쿄 토라노몬 힐즈(Andaz Tokyo Toranomom Hills)**

2014년 7월에 그랜드 오픈한 안다즈 도쿄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하얏트의 부티크 최고급 안다즈 브랜드 호텔이다. 롯폰기 힐즈, 오모테산도 힐즈에 이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힐즈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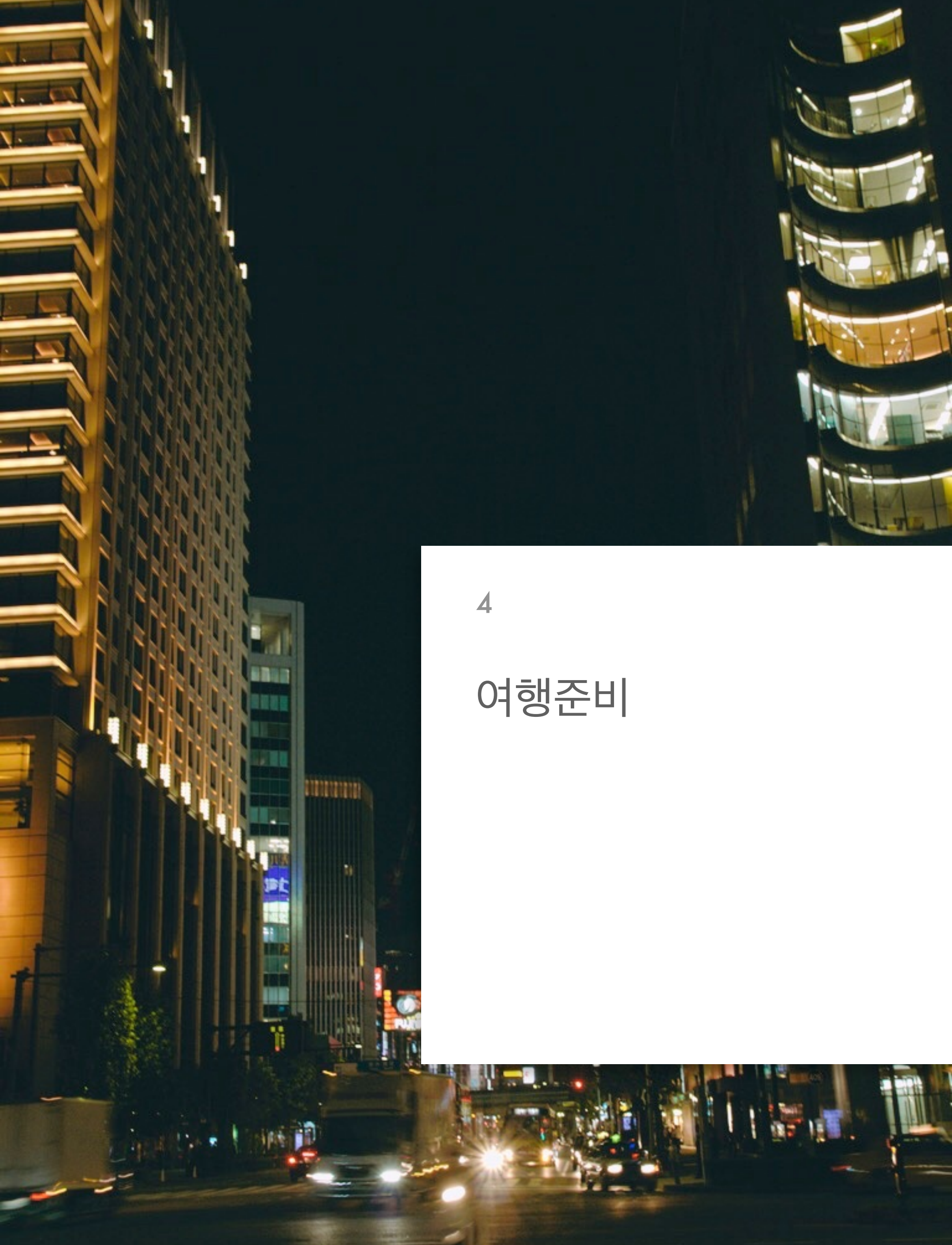


이미지 : <http://tokyo.andaz.hyatt.com/ja/hotel/rooms/view.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4

여행준비



이벤트 & 축제

모처럼 간 해외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여행했던 날이 유명한 축제가 있었다는걸 뒤늦게 알았다면? 1년 뒤 다시 가기도 어렵고, 그냥 넘기자니 가슴 어딘가의 찝찝함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 날짜를 확정하거나 아니면 확정 짓기전 [도쿄 현지에 열리는 이벤트나 축제 정보\(바로가기\)](#)를 미리 안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여행자보험

항공, 호텔 예약은 고민해서 예약하는 반면, 여행자보험은 ‘꼭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런 관점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은 여행 준비 중 다른 사항들 보다 더 중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상 시 만약을 위해 실손 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여행자보험도 우리가 여행을 할 동안 예상치 못하게 발생 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항목은 아래와 같다.

- 상해 : 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골절, 화상 등)
- 질병 : 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감기, 장염 등)
- 휴대품 : 여행 중 카메라, 핸드폰 등이 파손/침수 되어 수리비용이 발생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배상책임 : 여행 중 객실 내 기물 파손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사망 :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외에도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여행사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이제 **여행**

자보험은 제 2의 여권이라고도 불리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 내용별로 플랜이 다양하여 가입 시 보장내용과 보장한도 등 가입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장한도가 클 수록 일어날 사고에 대해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여러 플랜 중 최대 1억원(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2박 3일 기준 약 4~5천원 선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외에선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청구되는데 국내실비 중에 해외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나는 아닐거야~’ 하고 몇 천원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해외여행시 필수인 여행자보험은 가능하면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언제든지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게 좋다.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여행 중 발생한 사고사례

- 질병 : 아이가 여행중 발열이 시작되어 현지병원에서 중이염, 편도염 등을 진단받아 해열제와 링거 처방 (175,792원 발생했지만 본인 부담금 0원)
- 파손 : 여행 중 핸드폰 파손되어 액정 전면 교체 (휴대품 파손에 대한 보험금 20만원 한도)
- 도난 : 캠코더 가방을 바닥에 두고 쉬고 있는데 도난 당함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보험금 지급 613,377원)
- 상해 : 놀이동산에서 줄을 빨리 설려고 뛰다가 발목인대에 무리감 (현지병원 치료비 129,571원 지급)
- 위와 같은 상황 이 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해 처리하는게 좋다.

• 여행자보험 20%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하기

투어캐스트는 여행자 가입 회사인 [‘트래블로버’](#) 에 투어캐스트에서 자체 제작한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20% 할인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로도 바로 여행자보험 가입가능하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중에 있어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가입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입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20% 할인 가입

투어캐스트는 여행객 모두의
무사 귀국을 기원 합니다!



데이터 로밍

스마트폰이 생활화 되면서 해외여행 갈 때도 필수품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 데이터 로밍 또한 여행가기 전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데이터 로밍 신청이나 포켓 와이파이 등을 신청하지 않고 가서 무심코 데이터를 썼다가는 여행 경비보다 오히려 더 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데이터 로밍의 각각의 장점을 알아보자.

• 통신사 데이터 로밍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별도 해외 데이터 로밍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 로밍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되니 이 점은 꼭!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발 전 반드시 해당 통신사 114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하거나, 각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어플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이 1일 1만원 정도로 저렴하지 않은 편이며 혼자만 사용이 가능해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경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휴대폰 번호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 혼자 업무차 출장 가시는 분들께 추천 한다.

투어캐스트 Tip

만약 해외여행시 요금 폭탄을 맞을까 염려스럽다면 ‘해외 데이터 무조건 차단’을 각 통신사에 신청을 하고 가는게 좋다.

• 해외 유심칩

일주일 이상 장기간 여행 갈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는게 좀 더 저렴하다. 일본의 경우 8일 동안 사

용할 수 있는 약 2만원 정도로 8일 여행시 1일 2,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유심칩을 빼고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므로 한국에서 오는 전화는 수신이 불가능하고, 또한 일행들과 같이 이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혼자 장기간 여행가는 경우 추천! (슬롯을 열기 위한 핀셋 같은 도구는 미리 챙기자)

• 포켓 와이파이

조그만 포켓 와이파이 기기(에그)를 가지고 다니며 일행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 여행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충전을 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다. (단, 5핀 전용 케이블로만 충전 가능)

일본의 경우 1일 6,100원으로(10%할인된 금액) 최대 10명까지 동시 사용 가능하므로 친구들 또는 가족여행시 유용하다 볼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웹툰](#)

10% 할인 신청



렌터카 대여

하코네, 닛코, 후지큐 하이랜드 등은 도심해서 거리가 멀어 이동거리가 만만치가 않다. 또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일행들 특히 가족여행이라면 교통패스의 비용 뿐만 아니라 버스나 열차 시간에 맞춰 이동을 해야 하므로 이동에 제약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경우 도심 이 외 지역 여행시에는 차량을 렌터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며 가격도 우리나라 렌터 비용과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핸들로 좌측 차로로 운전을 해야하므로 처음 2~3시간은 적응 시간이 필요하며, 일본만의 교통신호만 잘 준수한다면 크게 어려운건 아니다. 만약 렌터카를 대여할 생각이라면 미리 국제면허증은 신청을 해두자.

• 차량 렌트시

- 렌터카 직원과 차량 확인 : 차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반납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흠집이 있는 경우 본인 책임
- 가득채운 주유 :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빌리고 그 상태로 반납을 하는게 원칙이나, 만약 주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납 시에는 남은 기름과 운전 거리에 따라 렌터카 회사에서 정산을 한다.(주유 후 영수증은 반드시 지참)
- 렌터카에 자신들만의 닉네임을 붙여준다. (ex. 문동이 등)
- 기어는 왼속, 방향지시등은 오른속으로 조작을 하며, 브레이크와 엑셀 위치는 동일하다.





• 운전시 주의사항

1. 좌측통행 (왼쪽주행)

- 일본에서 운전은 좌측 통행이 원칙
- 주행자선이 2차선인데 우측 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회전 할 예정이 없으면 좌측 차선으로 주행

2. 도로 위 우선 순위

- ①보행자 ②직진, 좌회전 차량 ③우회전 차량 순이다.

3. 비보호 우회전 (특히 주의)

- 일본은 우회전이 비보호이며, 파란불 신호에서 직진,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
- 만약 우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에서는 우회전 신호 시에만 이동

4. 빨간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

-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빨간색 신호라면 좌회전, 우회전 모두 정지를 해야한다.
- 하지만 빨간색 신호 밑에 파란색 화살표 방향의 차선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
- 요약 : 빨간색은 무조건 Stop! 파란색은 Go!

5. とまれ (토마레) : 일시정지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후를 살피고 출발해야함
- 경찰이 없어도 준수해야하며 벌금이 6000엔 이상



- 빨간색 표시가 바로 일시정지 표시이며, 골목에는 흰색으로 써져 있기도 하다.

6. 제한 속도

- 시가지 30~50km / 교외, 간선도로 60km / 고속도로 통상 100km
- 카메라가 없어도 반드시 지켜야하며, 과속하다가 어느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경찰차가 따라 붙을 수 있음
- 벌금 15000엔 이상

7. 추월주의

- 추월 금지선인 노란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 추월해선 안된다.
- 추월을 할 경우에는 추월 금지 구간을 지나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곳까지 기다린 후 추월을 시도한다.

8. 고속도로 진입

- IC(인터체인지)라고 불리는 입구를 이용

- 일반도로는 파란색 이정표이지만, 인터체인지는 초록색으로 표시
- 렌터카 대여시 ETC 카드 대여를 했으면 ETC 전용차로 이용 (하이패스 개념)
- 통상 좌석이 주행차선, 우석이 추월차선 (우리나라 반대 개념)

9. 주차위반

- 일본은 차를 구입할 때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을만큼 주차에 대해 예민
- 주차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하며, 만약 위반시 15000엔 ~ 18000엔 정도의 벌금 부과
- 만약 직접 처리하지 않고 렌터카 회사에 맡기면 25000엔 과금

10. 주유하기

- 레귤러 : 일반 휘발유(가솔린) / 하이오크 : 고급 휘발유 / 게이유 : 경유(디젤)



- 직원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레귤러 만땅데 오네가이 시마스’(일반 휘발유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말한다.
- 셀프 주유소인 경우 선불로 요금을 넣고 화면에서 레귤러(빨간색) 선택 후 빨간색 노즐 손잡이를 이용해 주유 (레귤러 : 빨간색 / 하이오크 : 노란색 / 게이유 : 초록색)

11. 기타

-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
- 만 6세 미만 자녀는 어린이 전용 카시트 착용 의무

일본에서
운전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전세계 46,000지역의
783개의 렌터카 업체
24시간
실시간 가격비교!

렌터카 가격 비교

국가

일본

도시

오사카(오사카) Osaka (Osaka)

장소

오사카(오사카) Osaka (Osaka) (전지역)

대여/반납 장소가 동일함

차량인도 날짜:

시간:

10:00

반납하기 날짜:

시간:

10:00

운전자 연령이 25-70 세 인 경우

검색

최상가 보장





일본에서의 쇼핑

일본의 상품 또는 식당 메뉴판의 가격은 소비세 8%가 별도이므로 계산을 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품목에 표시된 금액만 가지고 있다면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소비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

• Tax Free & Tax Refund 확인

일본 모든 매장이나 쇼핑몰이 소비세를 다 면세되는건 아닙니다. Tax Free 또는 Tax Refund 라고 적힌 매장에 한 해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잘 안되면 텍스프리(후리)데스까? 라고 물어보는게 좋다.

• 여권은 필수!

소비세 면세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상대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여권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여권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여권은 쇼핑할 때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한다.

여권을 소매치기와 분실 우려로 호텔 객실내 금고에 잘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소매치기가 거의 없으며, 간혹 여권을 호텔 금고에 그대로 두고 공항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가능하면 항상 지참하는게 좋다.

• 한 곳에서 구매

한 매장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 구매 시 소비세 면세가 가능하다. 일본은 판매자의 의해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특이

한 방식으로 한 동네의 같은 드럭스토어이지만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저렴한 곳을 찾아 구매를 하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고 따로따로 구매 시 소비세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한 곳에서 구매하는게 좋다.

- **소모품과 일반품은 따로 계산**

소모품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5,001엔 이상 구입 시(세금별도), 일반품은 가전, 장식품, 시계, 의류, 구두, 잡화 등으로 10,001엔 이상 구입 시(세금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품과 일반품을 합산 금액에서 면세가 되지 않는다. 아래 예를 통해 알아보자.

- 소모품 2000엔 + 일반품 4000엔 = 6000엔인 경우 면세 불가
- 소모품 6000엔 + 일반품 5000엔 = 총 11,000엔 구입을 하지만 소모품 6000엔 해당되는 소비세만 면세

• 쇼핑 후 주의사항

- 매장에 따라 Tax Free 카운터가 없고, 소비세 포함된 금액을 계산 후 별도의 Tax Refund 카운터에서 다시 환불 받는 경우도 있다.
- 면세 봉투에 포장된 물품을 입국할 때까지 뜯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뜯어 사용했다면 출입국시 소비세가 과금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사용할 품목은 소비세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계산해야 한다.
- 소비세 환급 시에는 여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므로 입국시 구입 물품이 확인되므로, 600불 이상 구매시 자진 신고한다.

•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600불(USD)이다.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럼 예를 통해 알아보자. (환율은 1달러 = 100엔 = 1000원이라고 가정)

일본에서 가방을 10만엔에 주고 샀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으로 면세한도 60만원을 40만원 초과한 셈이다. 그럼 초과한 40만원 X 간이세율 20% = 80,000원이 면세한도 초과 세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80,000원의 30%할인이 되어 56,000원(최대 15만원까지)을 부과를 하면 되지만, 만약 꼼수를 부려 신고미이행시 과심죄 적용으로 80,000원에 가산세 40%의 32,000원을 더해 총 112,000원을 내야 한다. (2년 이내 2회 불이행시 가산세 40% → 60%로 인상)

하지만 이런 세율은 물품마다 상이하므로(특히 비싼 품목일 수록 개별소비세 추가)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바로가기\)’](#)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조회시 주의할 점은 총 구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실제 구입한 금액 - 면세 한도 600불을 넣어야 한다. (자진 신고 시 조회된 금액의 30% 할인, 안하고 걸리면 40% 가산)

• 면세 한도 초과 관련주의사항

- 면세혜택은 개인 기준이며, 같이간 가족이나 일행과 합산은 불가하다.
- 영수증은 반드시 챙긴다. (650불 물건을 600불에 구매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 Tax 면세 받았을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면세 한도 600불을 제하고 계산한다.

자진 신고 이행으로 30% 할인도 받고, 뷰티풀 코리안 (Beautiful Korean)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보태기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일본 정부는 지문을 이용해 면세와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



동행서비스

동행서비스(바로가기)란 여행일정과 여행국가, 지역, 로밍 휴대폰, 한국 비상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여행지의 치안, 자연재해 등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외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만약 현지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객의 안전을 조금 더 빨리 확인 가능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 비상연락처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자동출입국 심사는 내국인이 해외 출입국할 때 심사관의 대면 심사를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통해 짧은 시간에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제도를 말한다. 별다른 서류없이 여권과 얼굴과 지문만 있으면 공항에서 등록이 가능하니, 처음 등록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20~30분 일찍 나가서 등록을 하면 두 고두고 편하다.

알고 계십니까?

해외에서 긴급상황 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해외여행 안전은!
영사콜센터

유료전화 +822-3210-0404(국내·외 겸용)
무료전화 +800-2100-0404(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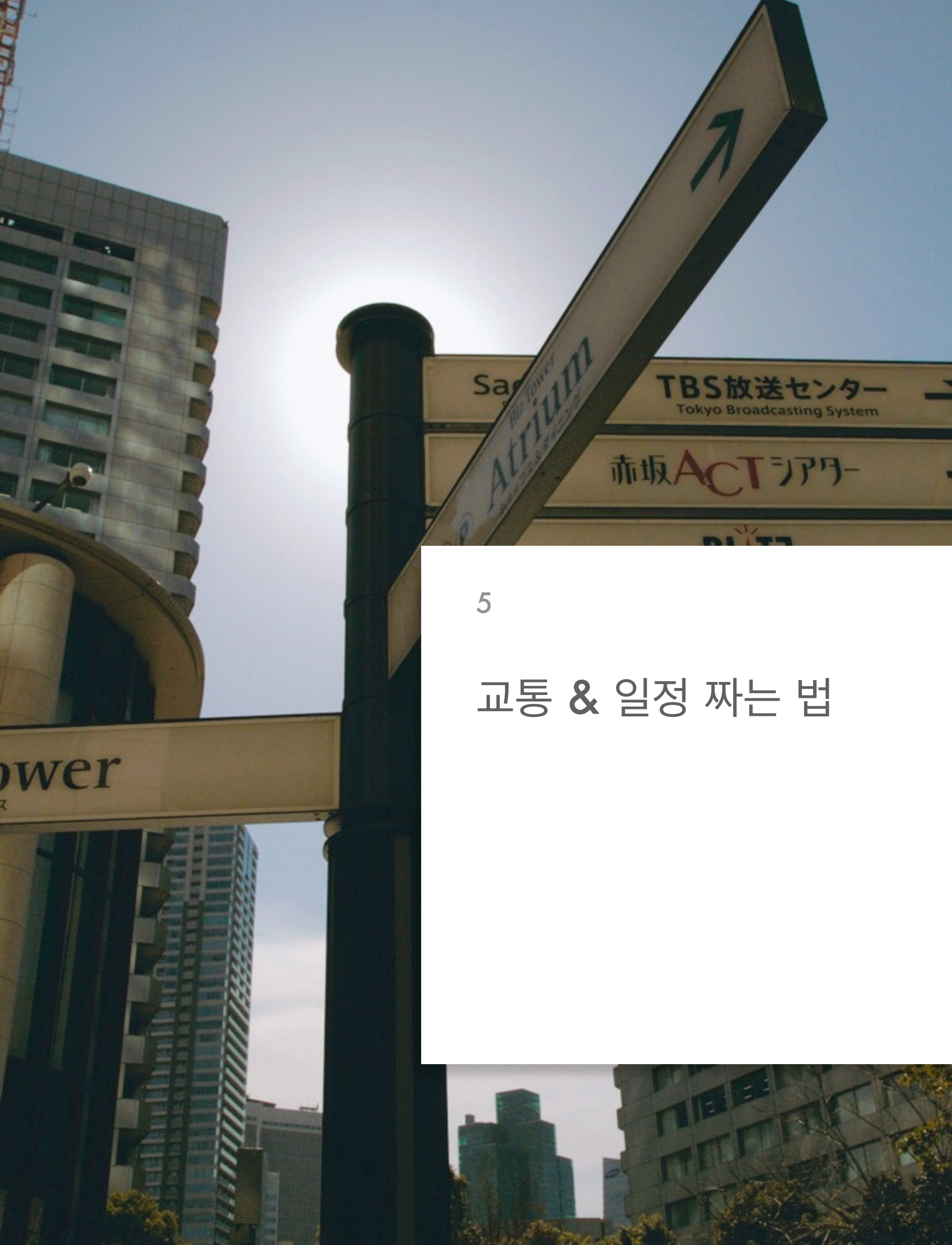
(이미지 : 영사관 콜센터 캡처)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외여행 시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하나 온다. 대부분은 막연히 ‘별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막상 위급 상황이 발생해 당황하면 문자 받은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긴급 상황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자 받은 번호로 연락하도록 하자.

[영사콜 센터 홈페이지](#)



5

교통 & 일정 짜는 법



도쿄 교통 이해

일본여행을 준비하다보면 흔히 ‘환승 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거다. 아마 이 부분이 도쿄 여행 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투어캐스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쿄 여행이 처음인 분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 전철 vs 지하철

우리나라는 전철과 지하철의 개념이 거의 같은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일본은 지상으로만 다니는 전차를 전철, 지하로 다니는 전차를 지하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전철로는 JR선과 사철이 있으며, 지하철로는 9개 노선의 메트로(Metro)와 4개 노선의 도에이(都営)가 있으며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것이다.

• JR선

우리나라 홍대입구역에서 잠실역으로 간다면 2호선으로 약 40분 정도 걸린다. 근데 만약 홍대입구역 - 잠실역을 가로 지르는 노선이 있다면? 그만큼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하철과 비유를 한다면 2호선은 순환선인 야마노테선(山手線)이고, 우리나라는 없지만 야마노테선을 가로 지르는 노선이 추오선(중앙선)/소부선이 있다. 신주쿠 역에서 야마노테선을 타고 도쿄역을 가면 편도

30분 정도 걸리지만 츄오선으로 약 15분 만에 갈 수 있어 그만큼 시간 단축되어 순환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소부선은 신주쿠역 - 아키하바라 역 구간, 츄오선은 신주쿠역 - 칸다 - 도쿄역을 잇고 있으며, 소부선은 모든 역을 정차하므로 츄오선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다.

※보태기 : 우리나라 2호선도 열차가 들어오면 음악소리로 상행/하행을 구분하지만, 야마노테선은 남자, 여자 목소리의 방송소리로 구분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알고 야마노테선을 탄다면 도쿄 여행의 깨알 재미가 될 것이다.

• 사철

도쿄의 대표적인 사철로는 오다이바 갈 때 타는 유리카모메, 하코네 갈 때의 오다큐선 등이 있으며, 다른 노선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싼 편이다. 하지만 각 노선별 교통패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그나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 지하철

민간이 운영하는 9개 노선의 메트로(Metro)와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4개 노선의 도에이(都営)가 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나라 여행객이 가장 헷갈리고 어려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쉽게 설명하면 메트로 9개 노선은 같은 회사이며, 환승시 추가요금이 없고, 도에이 4내 노선 또한 같은 회사이며 환승시 추가요금이 없다. 하지만 같은 지하철이라 해도 메트로에서 도에이(또는 역순)로 환승시에는 추가금이 발생된다.

• 연령대별 운임

만 12세 이상이면 어른 요금을 내야하며, 만 6세 ~ 만 12세 미만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어린이 요금은 통상적으로 성인 요금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된다.(단, 만 12세의 초등학교생이라면 어린이 요금)

6세 미만은 유아로 적용되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어른 또는 어린이에 동반된 유아 2명까지 무임 적용이 되나, 3명부터는 어린이 운임이 적용된다.



환승방법

도쿄 여행 준비하면서 가장 머리가 아픈 부분이 바로 전철, 지하철의 환승이 아닐까 생각한다.

투어캐스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여행준비 및 일정 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아래 예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 전철 - 지하철 환승

전철(JR선, 사철)과 지하철(메트로, 도에이)로 환승 시에는 완전 다른 노선이라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편도 편도 요금 지불을 해야한다.





• 메트로 - 메트로 환승

<p>ROPPONGI <small>Dep.</small> Station timetable Add to favorite</p>	
<p> Tokyo Metro Hibiya Line for KITA-SENJU <small>Train timetable Interval timetable</small></p>	
<p>GINZA <small>Tra.</small> Station timetable Add to favorite</p>	<p>¥170</p>
<p> Tokyo Metro Ginza Line for SHIBUYA <small>Train timetable Interval timetable</small></p>	
<p>SHIMBASHI <small>Arr.</small> Add to favorite</p>	

롯폰기 역 - (메트로 히비야 선) - 긴자 역 - (메트로 긴자 선) - 심바시 역

→ 같은 메트로 선이므로 편도 170엔으로 이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메트로 - 도에이 환승

 ROPPONGI Station timetable Add to favorite	
 Tokyo Metro Hibiya Line for KITA-SENJU Train timetable Interval timetable	
 HIGASHI-GINZA Station timetable Add to favorite	¥280
 Toei Subway Asakusa Line for NISHI-MAGOME Train timetable Interval timetable	
 SHIMBASHI Add to favorite	

롯데기역 - (메트로 히비야 선) - 히가시 긴자역 - (도에이 아사쿠사 선) - 심바시역

→ 메트로에서 도에이로 환승시에는 좀 더 비싼 280엔임을 알 수 있다.

※ 보태기 (280엔이 나온 이유)

(롯데기역 - 히가시 긴자역 편도 170엔) + (히가시 긴자역 - 심바시역 편도 180엔) - (지하철 특수할인 70엔)

= 280엔

• 도에이 - 도에이 환승

 ROPPONGI Station timetable Add to favorite	
 Toei Subway Oedo Line for TOCHOMAE Train timetable Interval timetable	
 DAIMON(TOKYO) Station timetable Add to favorite	¥220
 Toei Asakusa Line Airport Ltd. Exp. for NARITA AIRPORT TERMINAL 1 Train timetable Interval timetable	
 SHIMBASHI Add to favorite	

롯폰기 역 - (도에이 오오에도 선) - 다이몬 역 - (도에이 아사쿠사 선) - 심바시 역

→ 메트로 - 도에이 환승보다 편도 220엔으로 좀 더 저렴하나 메트로 - 메트로 환승보다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에이선은 메트로보다 다소 비싼 편이며,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메트로보다는 이용이 적은 노선 위주로 되어 있다.



보통권 사용 주 의사항

• 보통권

스이카, 파스모 같은 IC카드, 각종 교통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편도 요금의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자.

• 초과 운임정산

승차 시 구입한 승차권보다 멀리 이동한 경우, 개찰구 옆의 정산기에 기존

구매한 표를 넣으면 부족한 금액이 표시가 되며, 표시된 금액만큼 돈을 넣으면 넣으면 새로운 티켓이 나온다. 이 티켓으로 개찰구를 통과시켜서 나올 수 있다.

tokyometro.jp (이미지)



정산기

• 주황색 개찰구

예전 노량진 역처럼 1호선과 9호선이 환승 통로가 이어지지 않아 외부로 나가 환승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같은 메트로 노선이지만 개찰구를 나와 환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권으로 편도 티켓을 끊었을 경우 일반적인 개찰구를 표를 통과시키면 표가 다시 나오지 않으므로, 새로 표를 구매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역에서는 주황색으로 된 개찰구에 표를 통과 시켜야 기존에 구매한 표가 다시 나와 환승이 가능하다.

• < 주황색 환승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역 >

• 시부야, 이케부쿠로, 우에노, 미쓰코시마에, 오테마치, 이다바시, 구단시타, 히비야 ⇔ 유라쿠초, 아와지초 ⇔ 신오차노미즈, 우에노히로코지 ⇔ 나카오카치마치





교통패스

일본은 어느지역이든 교통패스가 잘 갖춰져 있다. 교통패스는 특정한 조건을 붙여 기존 교통비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그 종류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다. 여기서 두번째로 머리가 아플 것이다.

투어캐스트에서는 지하철 노선도만 큼이나 복잡한 패스를 여행객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패스만을 골라 소개를 하겠다.

승차권	JR	메트로	도에이	도버스	도덴	비고
도쿄 프리킷푸 1590엔 / 1일 유효	V	V	V	V	V	닛포리 도네리 라이너
메트로 도에이 지하철 공통 1일 승차권 1000엔 / 1일 유효		V	V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 (Tokyo Subway Ticket) 24시간권 : 800엔 48시간권 : 1200엔 72시간권 : 1500엔		V	V			공항 에서만 구매 가능
도쿄 메트로 24시간권 600엔		V				
도에이 마루고토 킷푸 700엔 / 1일 유효				V	V	닛포리 도네리 라이너
JR 동일본 도교도 구내패스 (도쿠나이패스) 750엔 / 1일 유효	V					
도에이 버스 하루 승차권 500엔 / 1일 유효				V		
도덴 1일 승차권 400엔 / 1일 유효					V	
유리카모메 1일 승차권 820엔 / 1일						유리 카모메
IC카드 스이카 / 파스모	노선 상관없이 이용 가능					

• **확인사항**

-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Tokyo Subway Ticket)은 방일 외국인 전용으로 하네다&나리타 공항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이용구간은 메트로 도에이 지하철 공통 1일 승차권과 동일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다.
-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은 연계된 패스가 많으므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 도쿄메트로 1일 승차권이 사용 시작에 상관없이 첫차부터 막차까지 하루 사용기준이었지만, 2016년 3월 26일부터 사용한 시간부터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으로 날짜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 도덴은 도덴 아라카와센이며, 노선전차이다.

• **IC카드 (스리카 & 파스모)**

IC카드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티머니같은 충전식 카드이며, 스리카는 동일본 JR, 파스모는 메트로에서 발행한 카드이며, 모든 노선이 구분없이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편의

점에서 물건을 살 때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를 살 때도 이
용이 가능하다.

구분		스이카	파스모
공통점		보증금 500엔	
차이점	구매장소	JR 역	도쿄 메트로 역
	환불수수료	210엔	-

- 스이카는 환불 시 환불 수수료 210엔가 있어 잔액이 210엔 미만인 경우 보증금 500엔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 210엔 제한 후 보증금 500엔과 같이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이카 사용시 잔액을 0엔으로 만든 후 환불하는게 좋다.

- 스이카 잔액 0엔 만드는 방법

- 1) 편의점에서 스이카 잔액보다 더 많은 산 후 차액만큼 현금을 지불한다.
- 2) 잔액보다 먼 거리로 이동 후, 하차역 정산기에 스이카를 넣고 차액만큼 지불한다. (단, 130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탑승 가능)

[스이카 홈페이지](#) / [파스모 홈페이지](#)

• **교통패스 vs IC카드**

위 교통패스를 노선별 하나하나 따져가며 일정을 짜고, 여행 다니는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복잡한 노선도만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짜는건 쉽지가 않으며, 이동 제약이 발생된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런 교통패스보다는 IC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버스 탈 때도 현금보다 카드가 더 저렴한 것처럼, IC카드를 이용하는게 작게나마 할인이 된다. 오다이바의 유리카모메 1일 승차권,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패스, 하코네 프리패스, 에노시마 가마쿠라 패스 등 특정 지역의 교통패스가 아닌 경우에 IC카드만으로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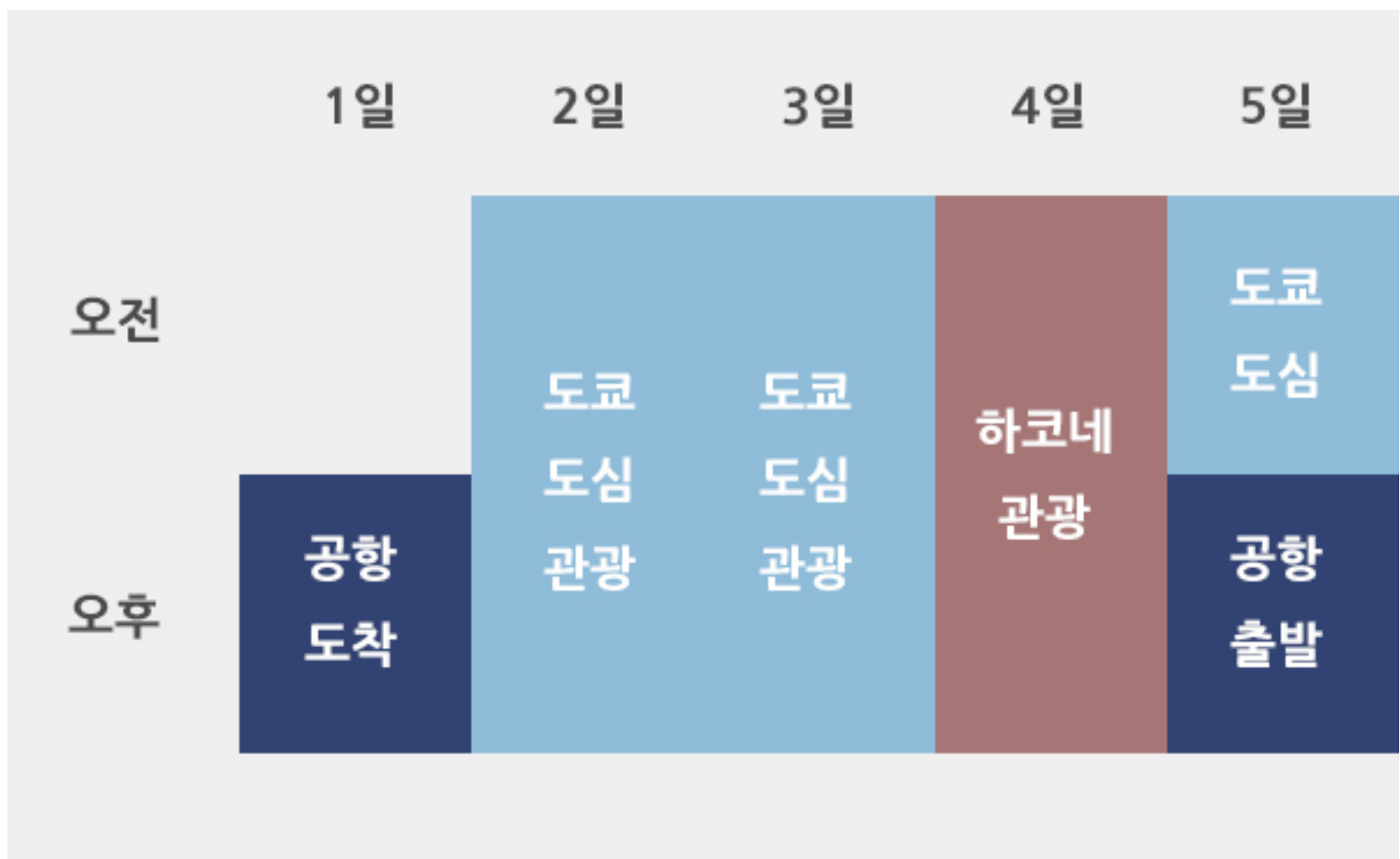
• **그럼 왜 교통패스를 소개를 했나?**

IC카드만으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왜 패스 소개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교통패스들과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패스가 많으므로 기본 패스(특히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응용되는 패스의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교통패스와 IC카드의 활용 (꿀팁!)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은 공항에서만 구입이 되고 날짜가 아닌 시간 개념으로 24시간, 48시간, 7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이런 교통패스와 IC카드의 활용으로 교통비를 저렴하게 간단하게 일정을 짜보자.

< 예시 : 나리타 공항 도착 4박 5일 일정이며 호텔은 지하철 역에 있다고 가정 >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 &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이 할인된 금액으로 24시간권 2800엔, 48시간권 3200엔, 72시

간권 3500엔에 구입이 가능하다. (자세한건 시내 공항 진입편 참고)

쉽게 생각하면 300~400엔 정도만 추가하면 며칠 더 이용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지 교통비를 생각한다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텔이 JR선이 아니 지하철 역에 있다고 가정을 했으므로 호텔에 나와 호텔로 갈 때 무조건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위 이미지처럼의 일정이라면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 & 도쿄 지하철 자유승차권을 호텔 위치에 따라 48시간 또는 72시간을 끊고 지하철(메트로, 도에이)을 탈 때는 이 패스로 타고, 전철(JR, 사철)을 타는 경우에는 IC카드를 사용한다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물론 추가적으로 일정 짜는 법이나 응용패스에 대한 설명은 뒷장 참고!!!



노선도 검색 추천 어플

예전에는 종이로 인쇄된 노선도를 들고 다니며 하나하나 찾아갔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노선도 검색 전용 어플 또는 구글 맵을 통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 중 많은 어플들이 있지만 투어캐스트에서 미리 사용해보고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두 개의 노선도 검색 어플을 소개하겠다.

구분	NAVITIME for Japan Travel	도쿄 지하철
어플		
한국어 지원	<p>일부 지원 영어 또는 일본어로만 검색</p>	<p>지원 한국어 검색 가능</p>
특징	전화번호 검색 가능	랜드마크 검색 가능
JR선, 지하철 연계 검색	JR선과 지하철 검색 가능	JR선 검색 불가
조회기록	저장	-
검색결과	환승순, 최소도보, 저렴한 요금순, 최단시간 등 다양한 정렬 가능	한 구간만 표시
다운로드	 	 
총평	<p>- JR선과의 연계성을 비롯해 다양한 구간 검색으로 Japan Travel 어플을 추천!</p> <p>- 역 이름이 영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도쿄 지하철 어플로 한국어 검색으로 영문 확인 정도로 사용</p>	



일정 짜는 법

보통의 가이드북을 보면 여행 기간에 따른 추천일정 또는 테마별 추천일정 코스를 나눠 소개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추천일정의 치명적인 단점은 추천일정에서 벗어나는 코스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처가 힘들다는 점이다. 투어캐스트에서는 이런점을 보완한 관광지별 관광 소요시간을 명시함으로 맞춤형(DIY식) 일정 짜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마 최초인 듯)

• DIY 일정 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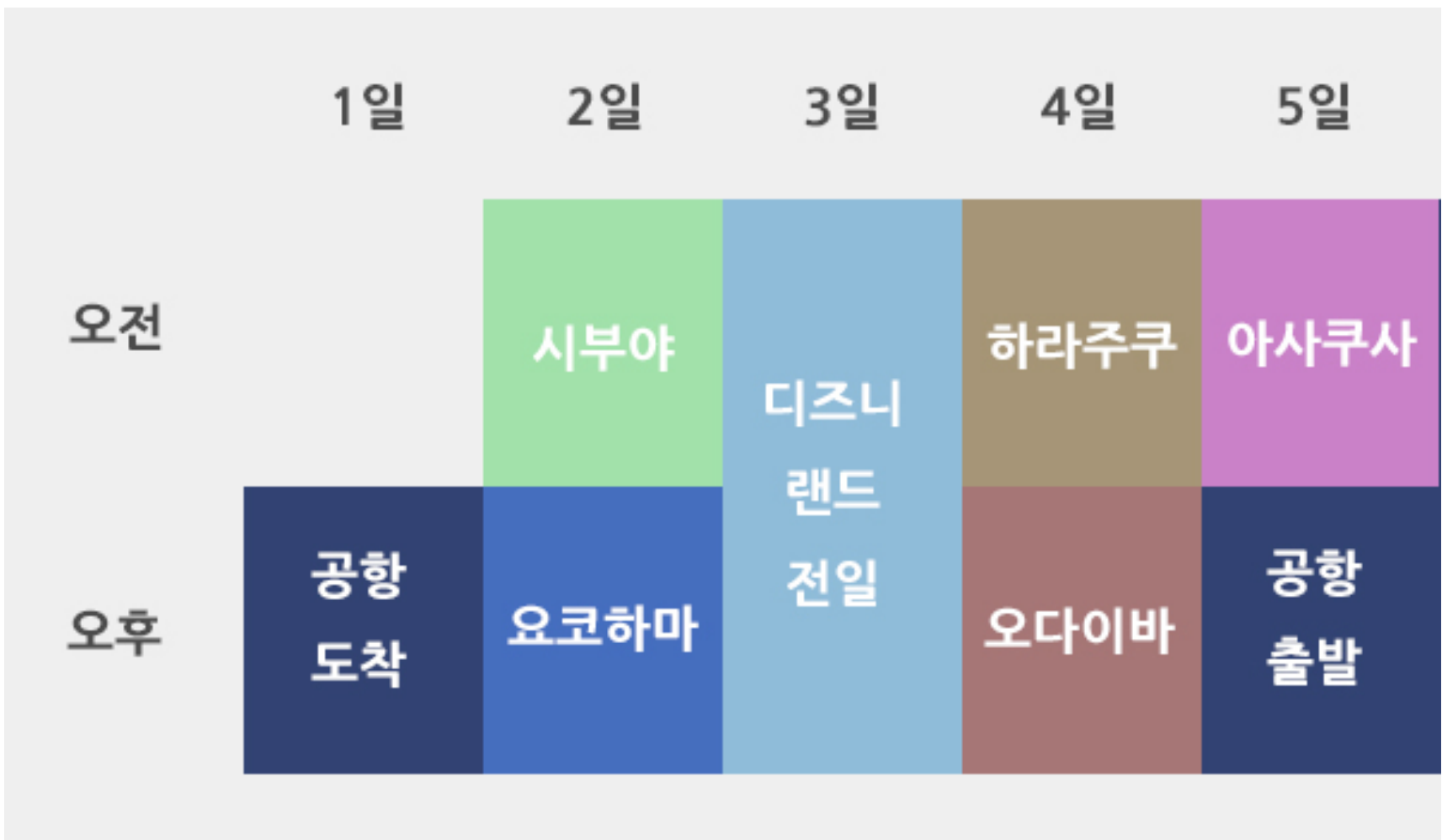
아래 이미지와 같이 비행기 여정이 4박 5일 패턴이고 오후 출발, 오후 리턴인 경우를 보자. 그럼 3일은 전일 일정이 가능하고, 마지막날 오전 일정만 가능하며, 가고 싶은 관광지 가 아래와 같다고 하자.



< 가고 싶은 지역 >

- 디즈니랜드 (1.0), 오다이바 (0.8), 시부야 (0.5),
- 아사쿠사 센소지 (0.5), 요코하마 (0.8), 하라주쿠 (0.5)

- ※ 괄호안의 숫자는 관광 예상 소요시간을 의미하며 각 지역 관광지 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전일, 0.5 반나절, 0.8은 오후와 저녁 일정)



이렇게 0.5라고 명시된 지역은 주로 오전 일정으로 0.8로 명시된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1.0은 하루 전일 일정을 생각해서 일정을 짤다면 위와 같이 DIY식 일정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관광지의 위치에 따른 동선과 특정 지역 패스(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티켓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은 투어캐스트 도쿄 e-book 2편을 참고하도록 하자.



生活生活

6

공항에서 시내



하네다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은 우리나라 김포공항처럼 도쿄 도심하고 거리가 가까운 장점이 있어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비행편보다 항공요금이 다소 비싼편이다.

그리고 김포-하네다 구간보다 저렴하게 인천-하네다 구간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피치항공이 취항하고 있으니 원하는 일정에 맞게 항공권을 구하면 된다.

• 모노레일

아마 우리나라 여행객이 하네다 공항 도착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교통편이다.

하네다 국제선 터미널에서 JR 야마노테선 하마마츠초 역까지 14분만에 갈 수 있으며, 요금은 편도 490엔이며 JR야마노테선 환승 시 도쿄역 방면(우측)으로 갈 때 좀 더 유용하다.

모노레일 홈페이지

< 유용한 패스 >

- 모노레일 & 야마노테선 할인 티켓
 - 하네다 공항 도착이 토, 일, 공휴일(또는 특정일)이라면 모노레일과 JR야마노테선 어떤 역이든 하차 가능
 - 편도 1회에 한하며 가격은 500엔

• 케이큐선

하네다 국제선 터미널에서 JR 야마노테선 시나가와 역까지 11분만에 갈 수 있으며, 요금은 편도 410엔으로 모노레일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JR야마노테선의 우측 방면으로 가기에 유용하다면, 케이큐선은 신주쿠 방면인 좌측으로 갈 때 좀 더 유용하다.

또한, 모노레일과 다르게 도에이 아사쿠사 선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사쿠사 역까지 환승없이 바로 가거나, 요코하마 역까지 바로 갈 수가 있다.

[케이큐선 홈페이지](#)

< 유용한 패스 >

- Welcome! Tokyo Subway Ticket
- 케이큐선 편도 또는 왕복티켓 + 도쿄 지하철 자유 승차권
- 케이큐선 편도권은 발매일 당일, 왕복권은 14일 유효

구분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
케이큐선 편도권	1200엔	1600엔	1900엔
케이큐선 왕복권	1500엔	1900엔	2200엔

• 리무진 버스

- 하루 550편 이상 운행하며, 우리나라 리무진처럼 도쿄 도심 이곳저곳 환승없이 이동 가능
- 각 지역별 호텔 앞까지 이동하므로 짐이 많거나 가족여행이 유용 (단, 정차하는 호텔인지 확인 필요)
- 신주쿠 역까지 편도 1230엔으로 다소 비싼편
- 리무진 버스 & 도쿄 지하철 자유 승차권

구분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
케이큐선 편도권 1장	1800엔	-	-
케이큐선 편도권 2장	-	3200엔	3500엔

[리무진 버스 홈페이지](#)

• 케이힌 큐코 버스

도쿄역, 시부야, 요코하마, 도쿄 빅사이트, 하코네 등으로 갈 때 환승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케이힌 큐코 버스 홈페이지](#)

• 투어캐스트만의 꿀팁!!!

피치항공이 2016년 2월 5일부터 인천 - 하네다 노선을 새로 취항함으로 저렴하게 하네다 공항으로 일본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인천 22:40 출발, 하네다 00:45 도착이므로 입국수속까지 마치면 심야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심 진입이 힘들다. 물론 심야 리무진을 타고 예약한 호텔로 가면 가장 안정적이거나 몇 시간 정도 있는데 1박 숙박비를 지불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 이럴 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이다.

1) 공항 노숙

- 공항에서 3~4시간 정도 노숙하고 하네다 공항 샤워룸에서 샤워 후 도심으로 이동
- 건장하고 샤워하는데 30분 안 걸리는 남자분들 추천
하나 여러모로 불편함을 감수
- 하네다 공항 샤워룸 30분 1030엔(음료권 포함)

- 이후 15분당 520엔 (1분 늦어도 초과금 발생하므로 차라리 15분간 더 이용!)
- 수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드라이어기 비치

샤워룸 관련 홈페이지

2) 천연온천 헤이와지마

- 우리나라 찜질방 같은 곳으로 좀 더 편하게 쉬고 싶은 여행객에게 추천!
- 공항-온천 셔틀, 입관료, 심야 추가요금, 조식 포함 평일 3500엔(토,일,공휴일 3800엔)
- 하네다 공항 01:50 출발이며 비행기 연착 또는 입국 수속 지연 되지 않으면 탑승 가능
- 인터넷 예약 후 입장 시 지불로 비행기가 연착되어도 비용 부담이 없다.
- 셔틀버스가 19인승으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탑승이 힘들 수 있다.

- 조식은 가격에 상관없이 조식권으로 식사 가능 (07:00 ~ 08:30)
- 케이큐선의 헤이와지마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운행, JR선 오모리 역은 100엔 지불

[헤이와지마 홈페이지](#) / [내부 모습\(구글맵\)](#)

3) 캡슐호텔 이용

- 하네다 국내선 제 1 터미널에 위치한 First Cabin 추천
- 1인 1박 비즈니스 클래스 5000엔 / 퍼스트 클래스 6000엔
- 국제선 터미널에서 국내선 제 1 터미널까지 심야 택시 비 약 1800엔 ~ 2000엔
- 일행이 3~4명으로 택시비도 1/N을 하여 좀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

[First Cabin 홈페이지](#)

4) 공항 근처 호텔

- 연인끼리 갈 경우 추천
- 경비는 가장 많이 드나, 가장 편하게 휴식이 가능
- 호텔 급에 따라 15만원 ~ 30만원 대로 심야 택시비 약 1500엔 ~ 2000엔 정도 발생
- 추천호텔 : 잘 시티 하네다 도쿄, 하네다 엑셀 도쿄, 마이 스테이지 호텔 하네다, 로얄 파크 호텔 하네다 등



2편 받는 방법

투어캐스트 도쿄 2편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2편 목차 >

1장 공항에서 시내

- 나리타 공항에서

2장 지역 안내

- 야마노테선 위주
- 신주쿠
- 하라주쿠
- 시부야
- 에비스
- 하마마츠쵸
- 도쿄역
- 아키하바라
- 우에노
- 이케부쿠로
- 신오오쿠보
- 도쿄 도심내
- 오다이바
- 긴자

- 츠키지 시장
- 롯폰기
- 아사쿠사
- 도쿄 스카이트리
- 도쿄 돔
- 다이칸야마 & 나카메구로
- 지유가오카
- 시모키타자와
- 키치조지
- 지브리 박물관
- 도쿄 도심 외
- 요코하마
- 디즈니랜드
- 가와고에
- 하코네
- 후지큐 하이랜드
- 닛코
- 에노시마 & 가마쿠라